

있다. 梅原博士에 의하여 判讀된 正文 및 拓影에 의하여 筆者가 읽은 僧俗人名은 다음과 같다.

甫州北岳寺銀糸香元亦破寺官上破用  
時諸人鑰鐵收價給還出正德十一年丙  
子五月日醴泉□□彩上後人永世轉  
重八斤二兩

李□□ 玉□鐘 池石□ 林宗秀 李世□ 金今音同 黃□□ 林莫同 伊你  
黃□□ 李堅林孝□ 尹俊 黃□文 黃漢京 林永壁 林仲才 黃□城 崔命山  
朴茂 黃□ 林菓同 崔自□ 未乙同 申永□ 李众伊 李同 李松 黃金□ 朴  
□□ 金□同 □□□□□□□□ 仇 □□□□□□□□ 琴戎 柞 金□□□□  
貴□ 訥齋 □音同 德松 □同 今同 金□末 □女猪 □合之 豆 習 金之  
介 □□□□ 銀非 今伊 另升山 內□同 黃金□ 嚴同 巾伊 勿金 女□今  
□元 □□□

이 銘文에 의하여 이 香皖은 원래 甫州北岳寺에 施納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甫州은 醴泉의 古號이다. (東國輿地勝覽卷二十四) 北岳寺는 文獻에 아니 보이는 바 銀糸香元은 銀入絲(象嵌 香皖을 가 르키는 것이다. 亦破... 還出은 難解인 바 施主諸人이 鑰鐵의 收價를 據出하였다는 뜻인 가 한다. 正德十一年丙子는 李朝 中宗 十一年 一五一六年 距今 四五〇年前이 된다. 끝으로 入重이 八斤二兩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密陽表忠寺 所藏의 大定十七年銘香皖(國寶七五號)의 八斤과 比等하다.

이 香皖이 日本. 流出된 經緯는 알 수 없으나 『옛날 日本에 將來되어 古寺(名古屋某寺)에 傳來된 것을 一九六二年에 賣出되어 坂本氏(東京 不言堂主人 坂本五郎)의 所有로 歸하였다』고 하였다. 이 같은 高古한 作品들이 日本의 古寺에서 傳來하고 있어 寺寶調査 또는 市販되고 있음은 留意할 만하다. 우리나라에 많이 傳來하지 않은 高麗佛畫佛經 등이 그러 하다. 總高 二七.五 cm 上徑 二七.一 cm 下徑 十八.一 cm

〔註〕이들은 抽稿 「高麗銀入糸香皖의 研究」(東大刊) : 「佛教學報 第一 輯 一九六三·十」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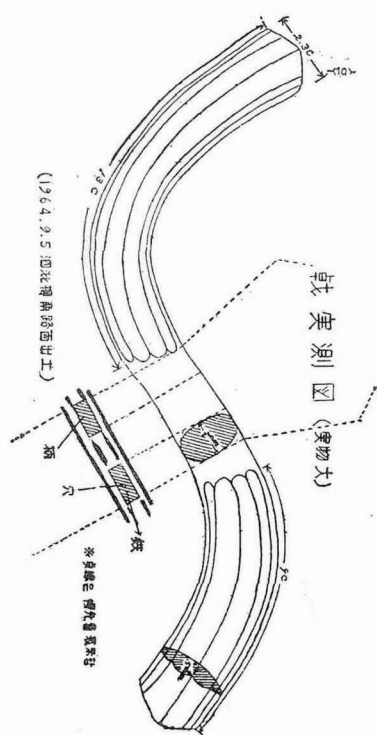
### 扶餘出土의 戟

洪 思 俊

今年 여름같이 長霖가 繼續한 해도 없을 것이나 山沙汰가 나고 地面이 작거나 간 關係로 地下에 埋沒되었던 遺物이 出土된 것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예가 去七月頃 扶餘 扶蘇山頂에 있는 泗泚樓南路邊에서 靑銅製 「戟」이 出土된 것이다. 그 形態는 S形으로 中央部에 左와 右에 一·五 cm間에는 가로 一 cm 縱 五 mm의 矩形孔이 上下로 뚫리고 있다. 그 矩形孔에는 무쇠가 녹이 슬어 끼어있는 것이다. 前面으로 볼 수 있는 面에는 圖面과 같은 凸凹帶가 있으며 後面에는 밋밋하게 되었다. 精密하게 만들어진 品으로 보거나 特別 靑銅製임을 보아서 百濟國이 滅亡하던 唐의 兵機로 推測되는 것이다.

扶蘇山이 百濟王都의 宮苑으로 認定되는 山에 特別 送月臺(지금 泗泚



樓址로傳하는 바로 南側에서 唐의 兵具가 出土됨은 懷古의 情을 禁할 수 없다.

### 麗川 興國寺의 調査

申 榮 勳

一九六一年 金庠基 金斗鍾 兩博士隨行 全南北古蹟 巡禮時 麗川郡 三日 面 靈鷲山下의 興國寺를 訪問하였다. 그 이듬해 겨울 同人 孟仁在, 鄭永鎬, 文甲洙 諸氏와 尋訪하였었다. 이때 여러가지 敎示를 받은 바 있으므로 간단히 그 개요를 소개하여 두고자 한다.

亂積 쌓기 基壇 그 前面으로 層階가 施設되었었다. 基壇위에 梁間三間 (四八·九三尺) 道里間三間(三六·五四尺)의 法堂을 造營하였는데 平面은 四面에 邊柱를 配置하고 中央에 二本의 高柱를 두는 平凡한 構成이다. 建物は 巍然한 모습을 갖인 당당한 것으로 柱高가 一尺內外나 되고 昌枋(一·二五×一·〇四尺)과 平枋(一·六二×一·〇尺)도 厚材를 有유있게 사용하였었다.

正側面各三間은 모두 等大로 割當된 것으로 中央間과 夾間과의 變化는 없었다.

기둥(平柱·直徑 二·三七尺平均)중 正面右側隅柱를 비롯한 三本이 顯著한 엔타시스를 갖고 있어 注目되었었다. 엔타시스의 手法은 三分二部位(위로부터)가 가장 膨大하여지는 麗末鮮初의 模樣態를 갖인 것이다. 前面三間에는 각각 소슬비살무늬의 四分閣을 달고 左右 側面에는 出入口를 내었다. 마루는 板床이나 榻의 높은 高床形이어서 南鮮의 特色을 具備하고 있는 듯 하였다.

拱包는 外三內四出目的 多包系인 바 그 짜임은 堅實하나 호화를 다한 수법을 구사하였다.

架構는 多包系建物の 通式을 따랐을 뿐이므로 特記할만한 것이 없고

처마의 處理도 平凡한 樣式이다. 지붕은 판자기와 지붕이며 별다른 장식은 없다.

天井도 우물천정의 일반적인 것이요 圓腹 또한 凡俗함을 면하지 못하였다(錦圓靑).

興國寺境內에는 大雄殿以外 여러 法堂이 있으나 모두 李朝末期의 建물이요 大雄殿側의 無說殿만은 壬辰前建物로 보이나 詳細히 調査하지 못하였다.

大雄殿은 當時의 實態把握後 寶物三九六號로 指定된 바 있다. 建築年代에 대하여는 異論도 있었으나 事蹟記에 記錄된 仁祖二年(一六二四)重 建說을 우선 重視하기로 하였다. 비록 年代는 뒤진 것이나 大雄殿의 手法은 다른 寺刹 鄕工들에 의하여 지어진 法堂과는 格이 다르고 樣式도 古格을 踏襲하고 있으므로 愛重되어야 할 資料로 判定되었던 것이다. 前記 金庠基博士에 依하여 調査된 餘他 資料는 다음과 같았다.

興國寺入口虹橋一基(仁祖十七年)

興國寺重修事蹟碑(肅宗二十九年)

大雄殿銅鍾(康熙四年乙巳三月全羅道順天地桐禮山大興寺鑄成大鍾重七百五十斤)

佛畫(乾隆六年辛酉四月日靈鷲山興國寺大法堂天龍幀·帝釋幀·道光七年銘佛幀·大雄殿後佛壁白衣觀音半跏像)

鐙子(道光十二年壬辰八月日改鑄興國寺鐙子)

靑銅製器(康熙十六年丁巳三月銘大形器·銘文은 後刻으로 點線으로 點을 따라 돌아가며 새겼다. 他寺刹에서 移入된 作品이다)

### 姜邯贊落星垆石塔

金 禧 庚

契丹大軍을 殲滅한 高麗名將 姜邯贊將軍의 出產地인 始興郡 冠岳山에